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대학생부문

들뢰즈의 베이컨 삼면화 해석에 기반한 초기 렘 콜하스 건축 이해 - 베이컨의 삼면화에 등장하는 세 가지 운동을 중심으로 -

Interpretation of Rem Koolhaas
Based on Commentary of Gilles Deleuze about Triptych of Francis Bacon
- Focused on the Three Movements in Bacon's Triptych -

○박진엽* 정태종**
Park, Jin-Yeop Jeong, Tae-J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arly thoughts of Rem Koolhaas by comparing it with the painting theory of Gilles Deleuze. This study deals with commentary of Deleuze about three movements of existence in triptych of Francis Bacon. This research explores the relationship of passive and active movements in triptych to match it with not only differentiation and undifferentiation: keywords of Deleuze, but solid and void: main logic of early Rem Koolhaas. Also, this study checks relevance between attendant movement in triptych and Bigness - the problem of large - of early Rem Koolhaas, by discovering common ground : guaranteeing substantiality, testifying unity and constancy, and using pre-objective user. Proving the thoughts of early Rem Koolhaas, Painting of Francis Bacon, and ontology of Gilles Deleuze are similar, this study explains the logic of early Rem Koolhaas: solid and void, and Bigness.

키워드 : 하강 운동과 상승 운동, 증인 운동, 솔리드와 보이드, 거대함

Keywords : Passive Movement and Active Movement, Attendant movement, Solid and Void, Bignes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초기 렘 콜하스(Rem Koolhaas)가 제시한 건축 개념을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회화론을 통해 해석한다. 그간 렘 콜하스는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의 철학과 유사하다고 이해되어 왔다. 예컨대 프로그램 위주의 전략, 이질성과 프로그램의 혼합, 다중 시나리오 등은 들뢰즈의 생기론과 맞닿아 있다고 알려졌으며, 이는 들뢰즈의 회화론으로 해석되어 오기도 했다. 그러나 프란시스 베이컨의 삼면화에 관한 질 들뢰즈의 해석은 그가 저서 『감각의 논리』에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음에도 이에 기반한 렘 콜하스 건축 이해는 미비했다. 이에 본 연구는 들뢰즈의 회화론과 렘 콜하스 건축 사이의 상관관계를 베이컨의 삼면화를 중심으로 분석하려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렘 콜하스의 초기 건축과 베이컨의 삼면화 사이의 유사성을 파악한다. 초기 렘 콜하스의 대표적 방법론인 솔리드와 보이드의 이항 대립을 베이컨 삼면화의 상승, 하강 운동에 대응해 보고, 베이컨의 삼면화에 등장하는 수평 운동 혹은 증인 운동을 렘 콜하스 건축의 거대함

(Bigness) 개념에 비교해 본다. 이를 통해 들뢰즈의 베이컨 삼면화 해석이 어떻게 렘 콜하스의 건축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탐구하며 이 개념들이 들뢰즈의 생기론과 공명하는지 확인해본다.

2. 문헌 고찰

2.1 렘 콜하스 초기 건축에 대한 논의

1) 솔리드와 보이드

렘 콜하스는 1990년 전후로 밀집과 보이드를 활용한 건축 디자인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단일한 서사를 부여하고 모든 내용을 통제하는 기존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다중 시나리오를 수용하고 의도적으로 불확정성을 긍정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프로그램이 확정된 공간과 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은 공간을 병치해 건축에 유연성을 도입했다.

2) 거대함(Bigness)의 건축

렘 콜하스는 1995년 저서 『S, M, L, XL』에서 거대함(Bigness)이라는 개념을 다룬다. 그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 건물이 거대해지는 것은 필연적이며, 거대한 건물에는 기존과는 다른 건축 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콜하스는 이를 다섯 가지 정리로 요약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¹⁾

* 단국대학교 학부 과정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조교수, 공학 박사
(Corresponding author : tjlvbs@naver.com)

¹⁾ Rem Koolhaas and Bruce Mau, 1995, S, M, L, XL, The MonacelliPress, p. 499-500

표 1. 거대함(Bigness) 개념의 다섯 가지 정리

키워드	내용
거대함의 정의	임계 크기를 넘어서면 건물은 Big building이 된다.
기존 건축 방법론의 부정	엘리베이터 등의 발명은 기존의 건축 방법론을 무화한다.
내부 외부의 분리	거대함으로 인해 내부와 외부는 분리된 프로젝트가 된다.
판단 유보	단지 크기 하나만으로 호오와 도덕판명이 초월된다. 내부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파사드를 기대할 수 없다.
컨텍스트의 부정	거대함은 어떤 도시 조직의 일부가 아니다.

2.2. 들뢰즈의 베이컨 삼면화 해석

들뢰즈는 존재의 두 운동을 다루는 생기론으로 세계를 해설한다. 그는 잠재태의 현실화와 현실태의 잠재화라는 두 운동이 존재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생명의 주름 운동으로 해설한다. 이 개념은 아래 표와 같이 이해된다.²⁾

표 2. 들뢰즈의 존재론 개념

잠재태의 현실화	현실태의 잠재화
펼치기	감싸기
분화	미분화
생산의 운동	용해의 운동
영토화	탈영토화
이완	수축

들뢰즈는 자신의 존재론을『감각의 논리』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의 회화를 통해서도 해설한다. 하지만 베이컨의 삼면화에는 생명의 이중 운동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설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했다.

베이컨의 삼면화는 기존의 종교적 삼면화와는 다른 구성을 선보인다. 세 개의 면은 어떤 이야기의 순서나 논리적 진행을 묘사하지 않는다. 들뢰즈는 베이컨의 삼면화를 서술적 관계로 독해하지 말고 존재의 세 운동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베이컨의 삼면화는 하강 리듬, 상승리듬, 수평리듬을 뜻한다.

그림 1. 프란시스 베이컨, 삼면화, 1970



베이컨이 1970년에 그린 삼면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세 리듬은 명확히 확인된다. 삼면화의 양옆 판들은 각각 하강운동과 상승운동을 나타내며 가운데 그림은 수평 운

동을 선보인다. 여기서 들뢰즈는 하강 리듬과 상승리듬을 각각 분화와 미분화라고 해설한다. 두 그림은 하강과 상승, 이완과 수축, 입음과 뱉음으로 대비되며 각각 분화와 미분화에 대응하는 개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평리듬은 기존의 이중운동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문제였다. 이에 들뢰즈는 증인 운동이라는 개념을 설정한다.³⁾

증인 운동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상승과 하강 운동의 실재성이다. 들뢰즈는 수평성을 갖는 증인 운동이 두 운동이 실재함을 증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의 발생과 차이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증인인 셈이다.⁴⁾

증인 운동의 두 번째 의미는 선택관성이다. 들뢰즈에 따르면 베이컨 삼면화의 증인은 단순히 관객이 아니다. 증인 운동은 다른 두 운동에 내재되어 있다. 즉, 증인은 자신과 분리된 객체를 관찰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과 구별되지 않은, 주체와 객체 간의 식별이 불가능 상태에서의 증인이다. 이는 증인 운동이 탈근대적 의미의 선험리성을 지니며 다른 두 운동과 본질적으로 구분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증인 운동의 세 번째 의미는 항구성이다. 들뢰즈의 분화와 역분화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하지만 베이컨의 삼면화에서 상승 리듬과 하강 리듬은 각각 상승하거나 하강만 할 뿐 운동의 항구성을 내포하지 않는다. 들뢰즈는 이같은 영구성의 결여를 증인 운동이 보충해준다고 설명한다. 다른 두 운동과 본질적으로 하나인 증인 운동은 수평성을 강조하며 이는 회귀성과 영구성을 함축한다.⁵⁾

표 3. 들뢰즈의 베이컨 삼면화 해석

베이컨의 삼면화	들뢰즈의 생기론
하강운동	분화
상승운동	미분화
증인운동	이중 운동 실재성 증거
	증인 운동의 식별불가능성 증거
	운동의 항구성, 회귀성 증거

2.3. 들뢰즈에 기반한 기존 램 콜하스 연구 분석

그간 학계에서는 질 들뢰즈의 철학을 바탕으로 램 콜하스 건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들뢰즈의 생기론에 기반한 연구가 주로 이뤄져왔으며, 그 외에도『감각의 논리』와『의미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해설도 이뤄졌다.

하지만 들뢰즈의 회화론을 기반으로 한 램 콜하스 연구는 베이컨의 삼면화가 아닌 단순화를 주로 다루어왔다. 베이컨의 삼면화가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말하며 삼면화의 문제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던 들뢰즈의 언명을 고려할 때, 들뢰즈의 베이컨 삼면화 해설을 바탕으로 한 램 콜하스 건축 철학 연구가 필요하다.⁶⁾

²⁾ 장용순, 2013,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형 04 : 생기론, 미메시스(파주), p. 30

³⁾ Gilles Deleuze, 2008, 감각의 논리, 민음사(서울), p. 85

⁴⁾ 박정태, 2019, 베이컨의 삼면화의 수평성에 대한 들뢰즈의 존재론적 해석 탐구, 현대미술학회 논문집 23권 1호 p.18

⁵⁾ Gilles Deleuze, 2008, 감각의 논리, 민음사(서울), p. 90

⁶⁾ Gilles Deleuze, 2008, 감각의 논리, 민음사(서울), p. 85

표 4. 들뢰즈 기반 램 콜하스 건축 철학 선행 연구 분석
(KCI 등재 기준)

구분	저자	제목
들뢰즈 생기론 전반	김소영, 이대검 (2021)	램 콜하스 건축 디자인에 나타난 공간 경계의 차이 연구
	장용순 (2011)	내재성 개념으로 본 현대 건축의 이분법 붕괴와 생성에 대한 연구
	김석영 (2009)	질 들뢰즈의 공간 담론에 기초한 램 콜하스 실내 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박하나 (2009)	들뢰즈의 주름론으로 본 해체주의 건축: 프랭크 게리, 램 콜하스, 피터 아이젠만을 중심으로
	김종진 (2005)	분기(Bifurcation)의 개념과 공간조직에 관한 연구
감각의 논리	김석영 (2012)	램 콜하스의 실내공간과 질 들뢰즈 회화론의 유사점 연구
	김석영 (2009)	신체성에 기초한 현대회화와 램 콜하스 실내 공간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김인성 (2011)	‘고립’의 전략을 통한 ‘힘의 표현’으로서의 램 콜하스의 ‘형상에 대한 연구
의미의 논리	박우열 (2016)	들뢰즈의 ‘의미의 논리’ 관점에서 본 램 콜하스 건축의 반효과화
시네마	형형질, 조한 (2013)	들뢰즈의 시간-이미지와 현대 건축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3. 램 콜하스의 건축과 베이컨의 삼면화 유사점 분석

3.1. 램 콜하스의 솔리드와 보이드, 베이컨의 하강 운동과 상승 운동

콜하스가 제시한 솔리드-보이드 개념은 베이컨의 하강 운동, 상승 운동과 유사하다. 두 개념 모두 들뢰즈의 생기론에 등장하는 이중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술한 대로 베이컨의 하강 운동과 상승 운동은 각각 들뢰즈 생기론의 분화와 미분화에 해당한다.

콜하스의 솔리드와 보이드 개념 역시 마찬가지다. 램 콜하스의 파리 국립도서관 현상설계안(1989)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도서관을 서고와 이용자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나누며 서고는 프로그램이 정해진 솔리드 영역으로, 이용자 공간은 프로그램이 미결된 보이드 영역으로 설정한다. 그는 서고를 다섯 개의 특이한 형태로 구성한 뒤 이를 보이드 내에 중첩한다. 이는 이용자가 공간을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하게 하면서도 의외의 사건을 유발하게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보이드는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유발해 공간이 끝없이 재구축되는 영역이 된다. 이는 기관의 유기적 분화와 기관 없는 신체로의 미분화라는 두 운동을 주장한 들뢰즈의 생기론과 공명한다. 이처럼 콜하스의 접근법은 건물 내에서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이중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수단이었다.

그림 2. 프랑스 국립도서관 현상설계안, 1989, 개념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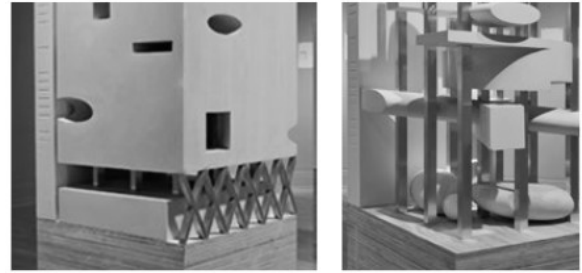


표 5. 베이컨의 하강, 상승운동과 램 콜하스의 솔리드, 보이드 비교

들뢰즈	베이컨	램 콜하스
분화	하강운동	솔리드
미분화	상승운동	보이드

3.2. 램 콜하스의 거대함과 베이컨의 증인 운동

들뢰즈는 베이컨의 삼면화에서 발견되는 수평적인 그림을 증인 운동이라고 해설한 바 있다. 이는 그가 분화와 미분화로 설명한 두 운동과는 성격이 다른 운동으로, 다른 두 운동의 실재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요소였다. 이와 유사하게 램 콜하스의 건축의 거대함은 솔리드-보이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초기 램 콜하스가 솔리드-보이드 개념과 거대함의 건축을 거의 동시에 사용한 것은 결코 시기적 우연이 아니었다. 이를 삼면화에서 등장하는 증인운동의 특징과 비교해 해설하도록 하겠다.

1) 솔리드와 보이드의 실재성

베이컨의 증인 운동은 하강 운동과 상승 운동의 실재성과 항구성을 담보한다. 들뢰즈는 이 증인 운동으로 인해 다른 두 운동이 실제로 존재하며 한결같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램 콜하스는 자신의 솔리드-보이드 전략이 실재하려면 거대한 건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오직 거대함만이 기능적 독립체 사이의 진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⁷⁾ 그에 따르면 거대함은 건축가의 의도와 강박으로 통제될 수 없는 광대한 공간이며, 거대함의 건축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기능적 복잡성은 다양한 변이를 일으킨다. 그가 설계한 파리 국립도서관 현상설계안 역시 거대한 형태를 보인다. 솔리드와 보이드 개념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건물이 거대해지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다섯 개의 특이한 서고 공간을 보이드에 중첩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거대한 크기를 필요로 했다. 이처럼 거대함은 솔리드와 보이드 전략을 실재화하는 필요조건이었으며, 이는 베이컨 삼면화의 증인운동이 보증하는 실재성과 공명한다.

⁷⁾ Rem Koolhaas and Bruce Mau, 1995, S, M, L, XL, The MonacelliPress, p.512

2) 솔리드와 보이드의 일원성, 항구성

베이컨의 삼면화에 등장하는 증인 운동은 전술했듯 상승-하강 운동에 내재된 운동이다. 이는 두 운동이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뜻한다. 또한, 증인 운동이 갖는 수평성은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이 항구적으로 이뤄지는 회귀 운동을 의미한다.

콜하스 역시 솔리드와 보이드가 존재론적으로 하나임을 시사한다. 그는 솔리드와 보이드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연결을 갖는다고 지적했다.⁸⁾ 이처럼 콜하스는 두 개념이 본질적으로 연결됨을 알았기에 이 둘을 동시에 수용하는 그릇으로서 거대함의 건축을 주장했다. 이 거대함은 재구축과 탈구축의 이중 운동에 의해 항구적으로 다양한 사건의 생산과 소멸을 촉진한다. 예컨대 파리 국립도서관 설계안에서 확인되는 솔리드와 보이드의 중첩은 두 영역의 일원성과 항구적인 이중 운동을 공간화한 셈이다.

3) 거대함의 건축이 갖는 선택관성

삼면화의 증인운동은 선택관성을 띤다. 증인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다른 두 운동과 식별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며, 이는 상승운동과 하강운동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두 운동을 선험적으로 인식해야 함을 시사한다.

렘 콜하스의 거대함은 그 크기로 인해 내부와 외부를 강력히 분리하며 기존의 도시적 맥락을 부정한다. 이는 이용자가 물리적으로 주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건물 내부에 소속된 상태로 건축을 지각해야 함을 뜻한다. 또한, 거대함은 판단을 유보시킨다는 특징을 갖는다. 거대한 공간의 광활함은 내부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파사드를 기대하지 않게 한다. 이는 거대한 공간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호오와 도덕적 관념으로부터 해방된 채 건축을 지각하도록 한다. 즉, 거대함의 건축은 단순히 이용자가 건물을 관찰하는 관객이 아니라 건물에 속한 리듬적인 증인으로서 건물을 바라보고, 솔리드와 보이드가 만들어내는 여러 사건의 주체로서도 작동하게 한다. 베이컨이 증인을 선택관적으로 나타낸 것처럼 렘 콜하스도 이용자가 선택관적으로 솔리드와 보이드를 지각하는 지위를 갖도록 거대함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표 6. 삼면화의 증인운동과 렘 콜하스의 거대함 비교

삼면화의 증인운동	거대함의 건축
하강-상승 운동의 실재성 증거	솔리드-보이드의 실재성 보장
하강-상승 운동의 일원성, 영구성 증거	솔리드-보이드의 항구적인 이중운동 동시 수용
증인의 선택관성	이용자의 선택관적 지각

4. 결론

본 연구는 들뢰즈의 베이컨 삼면화 해석과 렘 콜하스

초기의 건축 이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렘 콜하스 초기 건축 이론을 해설하였다. 베이컨의 삼면화에서는 하강, 상승, 증인 운동이 등장하며 이 중 하강 운동과 상승 운동은 들뢰즈의 분화와 미분화에 해당하는 개념임을 확인했다. 이는 렘 콜하스의 초기 건축에 등장하는 솔리드와 보이드 개념에 공명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삼면화에 나타나는 증인 운동은 다른 두 운동의 실재성과 항구성을 증언하며, 이때 증인은 단순히 관객이 아니라 다른 두 운동에 내재된 주체로서 선험리적인 양상을 가짐을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거대함의 건축은 솔리드와 보이드 전략이 실재하게 하며 항구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이용자가 선택관적으로 건물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처럼 베이컨의 삼면화는 렘 콜하스의 솔리드-보이드 전략, 거대함의 건축 개념에 공명하며 이는 모두 들뢰즈의 생기론적 사유로 해설할 수 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렘 콜하스의 초기 건축 개념과 베이컨의 삼면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

표 7. 베이컨 삼면화, 들뢰즈, 초기 렘 콜하스 개념 비교

삼면화의 운동	들뢰즈의 해설	렘 콜하스 초기 건축
하강운동	분화	솔리드
상승운동	미분화	보이드
증인운동	하강-상승 운동의 실재성 증거	솔리드-보이드의 실재성 보장
	하강-상승 운동의 일원성, 영구성 증거	솔리드-보이드의 항구적인 이중운동 동시 수용
	증인의 선택관성	이용자의 선택관적 지각

참고문헌

1. Gilles Deleuze, 2008, 감각의 논리, 민음사(서울)
2. Rem Koolhaas and Bruce Mau, 1995, S, M, L, XL, The MonacelliPress
3. 장용순, 2013,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4 : 생기론, 미메시스(파주)
4. 박정태, 2019, 베이컨의 삼면화의 수평성에 대한 들뢰즈의 존재론적 해석 탐구, 현대미술학회 논문집 23권 1호
5. 정혜진, 김광현, 2013, 렘 콜하스 빅니스 개념의 한계와 의의,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9권 6호
6. 박소라, 2014, 렘 콜하스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밀집과 보이드를 적용한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논문집 23권 6호
7. 박형진, 2016, 콜하스의 거대함의 건축에 나타난 실존적 의미, 기초조형학연구 17권 1호
8. 김석영, 2012, 렘 콜하스의 실내공간과 질 들뢰즈 회화론의 유사점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2권 10호

⁸⁾ Rem Koolhaas and Bruce Mau, 1995, S, M, L, XL, The MonacelliPress, p.200